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NIGHTINGALE  
가제 : 나이팅게일  
저자 : Amy Lukavics  
출판사: Harlequin Teen  
발행일: 2018년 9월 2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버즈피드(Buzzfeed) “YA 작가들이 추천하는 페미니스트 도서”로 선정
- \* “스티븐 킹 소설의 고전적인 분위기와 긴장감이 느껴지는 이야기. 외계 세상을 다룬 서스펜스 소설이자 남녀의 역할, 페미니즘을 선명하게 그린 시기 적절하고 중요한 소설.” – 『ALL THE RAGE』의 작가 커트니 서머스

1951년, 열일곱 살 준 하디는 세상이 원하는 여성상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소녀다. 누구에게 인생을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여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대학에 가서 세상 곳곳을 여행하는 것이 꿈인 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취미가 있었다. 바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는 내용의, 암울하고 으스스한 SF 소설을 쓰는 것이다. 한 번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밤을 꼬박 새서라도 타자기에 이야기를 모두 풀어내야 직성이 풀릴 만큼 열정적인 소설가인 준은 언젠가 이렇게 쓴 소설을 책으로 내고 싶은 야망이 있었다. 그러나 엄마아빠의 생각은 달랐다. 그 시대 또래 친구들이나 젊은 여성들 대부분이 택하는 길, 혹은 이끌려 가는 길로 준도 따라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의 생각이었다.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착실하게 집안일을 배워서 든든한 남편을 얻어서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다.

이미 아버지와 사업상 서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된 데닝 씨의 아들이 준의 장래 남편으로 정해진 상황이었다. 거만하고 매력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로버트 데닝과 결혼해서 아버지 사업이 더 흔들림 없이 성공가도를 달리도록 하고 남편을 부지런히 뒷바라지 하는 것, 준에게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를 치게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로버트와의 약혼식이 열린 다음 날, 준의 인생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신병원에 갇힌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강요에 의한 결혼을 극구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걸까? 정신 차렸을 때 이미 2인실에 갇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룸메이트, 엘레노어와 덩그러니 둘만 남은 준은 약혼식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벌어진 일을 떠올리려 하지만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버로우 플레이스 정신병원, 유명처럼 껌질만 남아 더러운 환자복을 입고 복도를 거니는 환자들과 이상한 말을

주고 받는 의사와 간호사들, 날이 갈수록 컷가에 형체 없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자 준은 “치료”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위들에 뭔가 수상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로 미쳐버리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준이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는 내면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비밀을 전부 알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듯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준을 무너지게 만들고, 엘레노어를 비롯해 치료에 반항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독한 약 때문인지, 정말로 미쳐버린 건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환상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준은 안전하게 이 이상한 시설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간호사의 소름 끼치는 태도에서 병원을 더욱 의심하게 된 준은 부모님이 갑자기 처음 보는 괴상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날을 마침내 떠올린다. 전날 약혼식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집에 돌아와 갑자기 떠오른 소설 아이디어 때문에 밤 늦도록 타자기를 두드리다 잠든 준이 아침식사를 하러 2층에서 내려왔을 때, 잘 잤냐고 묻는 목소리는 분명 엄마였지만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괴물이었다. 준이 기겁해서 비명을 질러대자, 역시나 괴상한 형태를 한 또 다른 존재가 자신이 아빠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하라고 외쳤고, 준은 반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저리 가라고 소리쳤다. 그런 다음, 정신 병원에 끌려온 것이다.

전날 약혼식에서 일어난 일도 조금씩 선명해졌다. 준의 약혼자로 정해진 로버트의 아버지가 파티장에 가득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두 젊은이의 만남은 자신과 준의 아버지가 끈끈한 사업 파트너가 된 것처럼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몇 개월 뒤의 준과 로버트의 결혼을 기다리며 두 사람이 살 새집을 구입했다는 깜짝 발표가 있는 직후 사건이 시작됐다. 약혼식장에 갈 준비를 할 때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꼭꼭 눌렀던 준은 그 대목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큼 앞으로 나가 로버트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친 것이다. 깜짝 놀란 상대방은 연단에서 잠시 휘청대다 갑자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바로 그 때, 준은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심장마비라고 생각하겠지만, 로버트의 아버지를 죽인 건 바로 자신이라는 확신이 든 것이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그 쪽으로 작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준이 다음 날 아침에 본 두 명의 괴물은 정말 외계 생명체가 부모님을 없애고 부모인양 행세를 한 것일까? 로버트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전, 준의 컷가에 자꾸만 맴돌던 누군가의 지시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준이 정신병원에서 겪는 기괴한 사건들과 잠깐씩 떠오르는 입원 전의 일들이 뒤엉키고 그녀가 겪는 이 혼란이 정신병인지, 외계인의 소행인지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한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가 능수능란하게 펼쳐지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소설가 에이미 루카빅스(Amy Lukavics)는 어릴 때부터 호러 소설에 특별한 매력을 느꼈다. 소설 『The Ravenous』는 브램 스토커 상 YA 소설 부문 우수상 후보에 선정됐으며 『Daughters unto Devils』는 2017년 YALSA 퀵 픽(Quick Picks)에 선정됐다.

제목 : LENNY'S BOOK OF EVERYTHING

가제 : 레니의 백과사전

저자 : Karen Foxlee

출판사: Allen & Unwin

발행일: 2018년 11월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9세 이상, 문학소설



**\* “카렌 폭슬리의 글은 우아하고 편안하다. 게다가 가슴을 파고드는 서글픔이 담겨 있어서 스토리에 빛이 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전작 『Ophelia and the Marvelous Boy』에 관한 서평**

유난히 불길한 징조를 잘 잡아내는 엄마, 집에 있는 시간보다 출장을 떠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아빠와 함께 살던 레니에게 특별한 동생이 생겼다. 두 살 터울의 남동생 데이비는 엄마가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온 첫 날, 레니의 눈에는 호두껍질 속에 콩콩 쌀인 예쁜 알맹이 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자꾸만 나직이 이야기하며 어린 레니의 작은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었던 엄마의 불안감은 데이비가 다섯 살 생일을 맞이한 뒤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발표하는 소설마다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며 큰 사랑을 받아온 호주 출신의 작가가 희귀 질환에 걸린 동생을 씩씩하게 돌보는 레니와 두 아이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세밀한 시선으로 그린 신작으로 돌아왔다. 순탄치 않은 삶 속에서도 병 때문에 외면당하는 어린 데이비를 지키기 위해 레니와 엄마, 그리고 착한 이웃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 돕는 모습은 가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가족의 의미와 진심 어린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데이비가 태어난 날은 날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성큼성큼 걸어 전 세계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온 날로부터 5일이 지났을 때였다. 일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동서남북 어디든,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는 아빠는 데이비가 집에 오고 몇 주가 지나서야 겨우 돌아왔다. 하지만 잠시 머무르다가 신문에 난 구인광고를 뒤적이고 다시 먼 길을 떠났다. 항상 엄마와 단 둘이서 집을 지키던 레니는 꼬물대는 동생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다. 데이비는 쑥쑥 자랐고, 엄마는 동생이 집에 처음 온 날 이야기했던 불길한 예감을 한 번씩 다시 꺼내곤 했다. 그리고 이상한 변화는 남들 눈에도 훤히 보일 만큼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집에서 버스로 한참 가야 하는 양로원에서 일하는 동안 레니와 데이비를 돌봐주던 이웃집 개스파 할머니도 단번에 알아챘다. 데이비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키도 덩치도 심하게 큰 것을 알아챈 개스파 할머니는 엄마에게 얼른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그 때마다 그냥 키가 좀 큰 것뿐이라고 손을 내젓곤 했다. 그러나 데이비가 다섯 살이 되고 난생 처음으로 유치원에 다니기로 한 첫 날, 데이비의 비정상적인 덩치는 엄마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데이비의 입학 거부한 것이다. 함께 입학할 아이들보다 키가 두 배나 더 큰데 어떻게 아무 문제없이 어울려

늘 수가 있겠냐며, 다들 데이비를 다시 데려가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섯 살 데이비의 키는 이미 5학년생만큼 자라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데이비를 병원에 데려간 엄마는 믿기 힘든 결과를 받아 든다. 거인증이라는 결과였다. 레니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누나로써 아픈 동생을 무조건 잘 보살펴주리라 다짐한다. 몸이 크다는 이유로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게 된 데이비를 위해 레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 권씩 배달되는 백과사전 시리즈를 함께 속속들이 공부하기로 한다. 한 출판사에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독자들을 선정해서 무료로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백과사전’ 시리즈를 보내주는 행사를 열었는데, 엄마가 쓴 편지가 뽑힌 것이다. 일주일에 하나씩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온갖 지식, 상식이 상세히 담긴 소책자가 배달되고 1년치를 전부 모으면 백과사전 전집이 완성된다! 텔레비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기한 이야기들이 담긴 이 소책자에 푹 빠져든 두 남매는 금요일마다 책이 배달되는 시간만 기다린다. 나란히 앉아 책에 실린 믿기 힘든 이야기에 몰두할 때면 레니는 아빠가 마지막 출장을 떠나고 벌써 1년 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처럼 자꾸만 자라는 데이비에 대한 걱정도, 혼자 두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는 엄마에 대한 걱정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특히 곤충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낀 레니는 나중에 크면 딱정벌레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데이비는 멀리 캐나다 숲 속에서 통나무를 직접 잘라서 멋진 집을 짓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하지만 두 남매의 이 소박한 꿈은 너무 일찍 끝나고 말았다. 데이비의 병은 진행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다.

매일 레니와 데이비, 엄마를 위해 한참을 기도해주는 개스파 할머니, 데이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레너드 의사선생님, 멀리 살지만 전화로, 편지로 쉼 없이 응원을 보내는 이모들, 그리고 가망 없으니 단념하라는 사람들의 권유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엄마와 레니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는 여덟 살 생일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 한 마디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엄마와 달리 거의 매일 밤 아빠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몸이 급속히 자라면서 관절을 비롯해 곳곳에 통증을 느끼는 동생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레니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묘사된 글을 통해 오롯이 전해진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기보다 백과사전을 이리저리 뒤지며 더 넓은 세상과 미래를 꿈꾸는 두 남매의 맑고 순수한 상상력은 이미 예정된 비극적인 결말을 더욱 애석하게 만들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행복한 지금 현재에 충실한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따뜻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카렌 폭슬리(Karen Foxlee)는 간호사로 일하다가 호주 선샤인코스트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소설가가 되었다. 데뷔소설 『The Anatomy of Wings』는 2006년 퀸즐랜드 주지사 문학상과 영연방 최우수 신인작가상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문, 도비 상(The Dobbie Award)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2014년 오릴리스 상(Aurealis Awards) 결승에 오른 『Ophelia and the Marvelous Boy』와 2017년 레딩스 아동 도서상 수상작 『A Most Magical Girl』을 썼다.